

Letter from Blacksburg



2024년 Virginia Tech vs. UVA Game 전에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크리스천의 역할”

블랙스버그를 지나간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9여 년간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온 이은영, 김민태, 김수지 가정입니다. 가족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 드리며 이 글을 나눕니다.

저희 가족은 2007년 남편이 먼저 블랙스버그로 오게 되었고, 저는 2010년에 합류하여 함께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 곳에서의 시간이 19년을 넘어섰고, 두 살이던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주님의 은혜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 사랑과 돌봄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버지니아텍에서 건축과 부학장으로, 저는 래드포드 대학교에서 간호대 교수이자 Nurse Practitioner로 일하며, 교회에서는 예와 다름없이 찬양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신 달란트로 교회와 지역사회에 아픈 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의 유학 생활과 이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크리스찬을 만나기도, 또한 많은 분들과 이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힘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의 열매와 하나님의 열매

세상의 기준에서 열매란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성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생각도 못 한 기회가 열리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마치 지휘자의 손길 아래 음악이 완성되듯 일이 풀려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안타깝게도 종종 가장 어려운 시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서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6-7)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장과 결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심고 물을 주는 것이지,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시며, 은혜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태복음 20:1-16)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줍니다.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신 주인의 모습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열매가 개인의 성취에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매는 점점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열매를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의 역할이 아주 작은 섬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에는 평안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따릅니다.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회복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 중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을 믿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상처받으며,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07년, 블랙스버그는 버지니아텍 총기 사건이라는 깊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지역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서로를 품고 지지하며 회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공동체의 힘과 회복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상처와 부족함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안아주고, 인내하며 들어주고, 기다려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 역시 유학 시절, 집을 열어 청년들을 맞아 주시던 교회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지금은 학생들과 이웃들을 돌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쁜 시기와 긴 투병의 시간 동안, 교회와 지역사회의 돌봄은 저희 가족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교수직으로 바빠, 시간도 정신도 없을 때, 저희 딸은 교회분들과 지역사회에 있던 분들이 잘 돌보아 주셔서 잘 성장하였고, 그 힘들고 바쁜 시간들을 그리 힘들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긴 투병 시간에는 교회분들께서 나눠 주시는 음식과 사랑으로 그 오랜 기간들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눈이 갑자기 안 보이신 한국분이 있다고 밤 10시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남편 출장과 어린 아이들로 도움을 많이 필요하고 또한 응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를 해서 응급실을 같이 가 응급조치와 설명을 해 드리고, 중요한 검사가 끝나기까지 하룻밤을 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가정에서 흔쾌히 밤새 돌보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아시는 몇 분이 김밥을 싸가지고 오셔서 다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분들은 남편분께서 멀리 시카고 출장에서 오후 1시쯤 돌아 오시기까지 그 아픈 분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직업상, 그리고 미국에 오래 살아 언어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명감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들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 안에서 아끼지 않으며 쓰는 이들이 불벽 여러 곳에 있구나 하고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국에 오면 가끔 살아있는 천사들을 만날 수 있는데, 경험을 한 것 같다고...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불벽의 지역사회는 다른 곳보다 따뜻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곳을 지나서 어디를 가더라도 속한 교회와 지역사회에 또 그곳을 잠시 머무는 이들에게 따뜻함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Wise County 의료 봉사활동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그늘이 되어 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삶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사람들은 결국 떠난다”라며 정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퍼주어야 할 수도 있는 이런 섬김이,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선행을, 공로를 쌓는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작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든든함과 감사함이 평안을 가지고 오고 또 새로운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맺으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열매는 지난 시간 동안 블랙스버그에서 만나고,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았던 모든 관계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우리의 역사였고, 하나님 안에서 맺은 열매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 귀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이은영, 김민태, 그리고 김수지 가정



2018년 성탄절 칸타타를 마치고

블랙스버그를 지나가신 분들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챗을 개설했습니다. “블랙스버그한인교회 Alumni”로 검색하시거나 옆 QR code를 스캔 해주세요. 오픈챗에서 더 편리하게 교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소문자로 kbcb 입니다.



교회 YouTube channel

@koreanbaptistchurchofblack3581 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2025년 가을학기를 돌아보며



LOGOS 대학부
가을수련회가 2025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Hardie
Retreat Center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대학부 학생들과 여러
청년부 지체가 모여
요한복음 13장 34-35절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야외 예배가
Blacksburg Municipal
Park에서 열렸습니다.

장년부, 청년부, 대학부, 유스,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외 예배를 준비해 준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 중단되었던 자매 리트릿이 2025년 11월 1일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중한 찬양, 기도,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8월에 시작했던 본당 공사가 2026년 12월에 마쳤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주일에 리모델링된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세요:

- 2026년 2월 13-15일 열릴 버지니아 청년 연합수련회에서 학생들이 참된 복음을 배우길
 - 2025년 말에 시작된 우리 교회 영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 2026년 봄학기 형제성경공부와 리브가 자매성경공부에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 겨울 폭풍과 추운 날씨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소서